

2026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개요

2026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생성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이다. 경량형 멀티모달 모델(sLMM) 기반 차세대 AI 플랫폼 개발과 실전형 생성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아스페이스가 주관하는 '2026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 이번 사업은 대구 AI 영상분석 전문 기업 피아스페이스가 주관하며, 한양대를 비롯해 세종대·연세대·중앙대 산학협력단이 함께 참여한다.
- 총 8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며, 약 3년 9개월간 경량형 멀티모달 모델(sLMM) 기반 차세대 AI 플랫폼 'iGen-MACS' 개발을 추진한다.
- 사업은 공통 기초 역량, 트랙별 심화, 프로젝트 기반 통합으로 구성된 3-Layer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 이를 통해 170명 이상의 실전형 생성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양성된 인재에게는 현장 파견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어 파견을 마친 학생에게는 채용 연계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뉴스H> 2026.06.08 [한양대-피아스페이스, 과기정통부 '생성 AI 선도인재양성 사업' 참여](#)